

경옥고 효능 및 제법에 대한 문헌고찰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金明東*

The Literature Study on the Efficacy and Manufacturing Process of Gyeongoggo

Myung Dong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Gyeongoggo is first described in the Collected Prescription by Hong Family in the Song Dynasty in China. It is composed of Radix Rehmanniae, Panax ginseng, Poria cocos, and Mel. Its main efficacy is to treat weakness of primordial essence of body and dry cough, and to invigorate qi and replenish yin principle.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escriptions that people have been using for a long time. We studied the documents recorded in the medical classics and comprehended the following results. Gyeongoggo has efficacy to keep a person healthy and live long age, to treat amnesia and dizziness from brain weakness, to strengthen muscle and bone by improving function of stomach and colon, to improve a person's memory and judgement, to invigorate brain weakness, and, to treat tuberculosis and lung cancer. The longer a person take it, the better it is for one's health and meditation. When it is made, it is important to mix four components up, to boil it with an oak tree for three days and nights, and then to add water from a well to reduce heat for a full day, and to boil up again for a full day to mature fully. As gyeongoggo is acquired not only by the full heart of a manufacturer but also the sympathy of nature, it is important to choose a clean place to make and keep. When it is taken, it is proper to take it with warm water or liquors. And when it is made, we came to know that it is possible to make gyeongoggo with special efficacy by adding one to three more components.

Key Words : Gyeongoggo, weakness of primordial essence, tuberculosis, lung cancer.

I. 緒論

경옥고는 洪氏集驗方에서 최초로 기록¹⁾된 처방으로 生地黃, 人蔘, 茯苓, 蜂蜜의 4가지 약물이 配伍되어

* 교신저자 : 김명동.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mail : mdkim@sangji.ac.kr Tel : 033)730-0670
접수일(2011년 2월 14일), 수정일(2011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2011년 3월 21일)

1)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中國古代醫方眞本秘本全集. 戰國-宋元時期券 第17冊. pp.443-446.

만들어진 益氣養陰하는 經典의 名方²⁾으로 『東醫寶鑑』 신형편의 「養性延年藥餌」에 “填精補髓하고 調眞養性하여 返老還童하고 補百損하며 除百病한다.”³⁾고 소개된 약물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여 온 韓藥製劑이다. 경옥고는 국내 많은 제약회사에서

2) 陈孝银, 魏春山. 琼玉膏抑制肝癌细胞HBxAg表达及对原发性肝癌的防治作用. 细胞与分子免疫学杂志. 2007.23(1). pp.56-59.

3) 동의보감국역위원회. 대역동의보감. 서울. 범인문화사. 1999. pp.131-132

한의약제제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개업한의원들이 전통방법으로 직접 경옥고를 만들어 진료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며 경옥고를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한편 경옥고가 결핵균⁴⁾, 폐암⁵⁾ 폐암방사선 치료 후 독소감소 효과⁶⁾, 폐암화학요법으로 야기된 골수세포 분열 억제⁷⁾노쇠 지연작용⁸⁾⁹⁾ 위점막보호작용¹⁰⁾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나 경옥고 제법이나 경옥고 효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경옥고 처방을 살펴보면 분량이 차이가 있고, 본래의 기본방에 가미한 가미경옥고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임상에서도 경옥고에 몇 가지 한약을 첨가한 가미경옥고를 만들어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용하고 있는 성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경옥고 제조자들은 모두가 똑같이 전통적인 방법에 의거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책마다 제시하고 있는 제조 방법에 차이가 있다. 또한 문헌 해석을 달리하거나, 제조를 하는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제조 방법을 바꾸는 폐습이 있어 경옥고의 약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옥고 제조방법에 대한 문헌 고찰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經方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맛이 있고 쓰면 쓸수록 더욱 신기하다."고 하여 經方을 학습하고, 응용하고 연구한다면 임상에서 치료 효과를 높일 것¹¹⁾이라는 주장이 옳다는 의견을 갖고, 경옥고의 효능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여 경옥고의

임상응용에 도움을 얻고자 『洪氏集驗方』, 『醫學入門』, 『東醫寶鑑』, 『醫宗金鑑』, 『景岳全書』 등의 의서에서 경옥고에 대한 처방구성과 제조방법, 효능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 고찰하여 보고한다.

II. 本論 및 考察

경옥고는 송나라 때 洪遵의 洪氏集驗方에 기재된 名方으로 원래 虛勞乾咳를 위해 설계된 약물¹²⁾로 치료와 건강을 지켜주는데 모두 효과가 있는 고대의 良方이다. 약은 비록 4가지이지만 처방을 만든 의미가 높고 원대하고, 약물을 짝지어 섞음에 정밀성과 적당성은 물론이고 또한 제작이 꼼꼼이 생각되고 연구되었는데 효과는 養陰益氣하고 互相生發하여 모두 養陰潤燥하는데 滋陰하면서도 膩하지 않고, 元氣를 補益하는데 또한 燥하지도 熱하지 않게 하고 정기를 淸純하게하고 또한 한열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특징이 있다¹³⁾. 최근 임상가에서 자체적으로 경옥고를 생산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옥고의 효능에 대한 가치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경옥고의 문헌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고, 경옥고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하였다고 하는데, 각각의 경옥고를 구입하여 기미를 분별하여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경옥고의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경옥고를 어떤 병증에 활용하여 그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자는 경옥고가 최초로 기록된 『洪氏集驗方』을 비롯하여 『醫學入門』, 『東醫寶鑑』, 『景岳全書』, 『醫宗金鑑』 등의 의서에 수록된 경옥고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경옥고의 효능, 연령익수에 대한 자료, 복용량, 경옥고 제법 및 약제의 수치방법, 3일주야 불 때기, 우물물에 담그기, 1일주야 불 때기, 복용방법, 보관방법에 대한 순으로 고찰하였다.

4) 全相福, 鄭熙才, 鄭昇杞, 李珩九. 瓊玉膏가 結核菌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1(4). pp. 555-563.
5) 이은숙, 서부일, 이준우, 배진승. 경옥고 및 경옥고 가미방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2002. 17(2). pp. 101-109
6) 陳孝銀, 魏波, 孫立, 黎俏梅. 瓊玉膏對實驗性肺癆小鼠化疗 增效減毒作用的實驗研究. 陝西中醫. 2003. 24(4). pp.376-377.
7) 陳孝銀. 瓊玉膏減輕實驗性肺癆小鼠化疗導致抑制骨髓有核細胞分裂的研究. 中成藥. 2005. 27(1). pp.489-491.
8) 薛雨芳, 李振波. 瓊玉膏對小鼠實驗性衰老模型神經系統的作用研究. 中藥新藥與臨床藥理. 1999. 10(3). pp. 159-161.
9) 薛雨芳, 區永欣. 瓊玉膏延緩衰老作用的實驗研究. 中國中醫藥科技. 1997. 4(3). pp.161-162.
10) 陳孝銀, 沈強. 瓊玉膏保護胃粘膜炎作用的實驗研究. 新中醫. 2000. 32(8). pp.36-37
11) 원진희. 한의학 치료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p.89-91

12) 陳孝銀. 瓊玉膏含藥血清對化疗藥物抑制肺腺癌細胞株GLC-82體外培養增效作用的實驗研究. 新中醫. 2004. 36(11). pp.75-77
13) 陳孝銀, 魏波, 孫立, 黎俏梅. 瓊玉膏對實驗性肺癆小鼠化疗 增效減毒作用的實驗研究. 陝西中醫. 2003. 24(4). pp.376-377

1. 경옥고 효능에 대한 자료

『洪氏集驗方』: 此膏填精補髓, 腸化爲筋, 萬神具足, 五臟盈溢, 髓實血滿, 髮白變黑, 返老還童, 行如奔馬, 日進數食, 或終日不食亦不飢, 關通強記, 日誦萬言, 神識高邁, 夜無夢想。

『醫學入門』¹⁴⁾: 大能填精補髓, 化腸胃爲筋骨, 萬神具足, 五臟盈溢, 髮白轉黑, 返老還童, 行如奔馬, 日進數服, 終日不食亦不飢渴, 癱瘓癆瘵尤妙

『醫宗金鑑』¹⁵⁾: 治虛勞乾效. 治肺虛勞, 肺痿乾嗽效 涎消

『東醫寶鑑』¹⁶⁾: 填精補髓 調眞養性 返老還童 補百損 除百病萬神俱足 五臟盈溢 髮白復黑 齒落更生 行如奔馬 日進數服 終日不飢渴 功效不可盡述

『洪氏集驗方』, 『醫學入門』, 『東醫寶鑑』에 나타난 경옥고의 효능은 서적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기록된 글에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효능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의서에 따라 독특한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에 따라 공통적으로 언급한 효능과 차이가 있는 효능을 구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경옥고의 일반적인 효능과 그 외 효능

문헌	공통적인 효능	차이가 있는 효능
洪氏集驗方	此膏填精補髓, 萬神具足, 五臟盈溢, 髮白變黑, 返老還童, 行如奔馬, 日進數食, 或終日不食亦不飢	腸化爲筋, 髓實血滿, 關通強記, 日誦萬言, 神識高邁, 夜無夢想。
醫學入門	大能填精補髓, 萬神具足, 五臟盈溢, 髮白轉黑, 返老還童, 行如奔馬, 日進數服, 終日不食亦不飢渴	化腸胃爲筋骨, 癱瘓癆瘵尤妙
醫宗金鑑		治虛勞乾效. 治肺虛勞, 肺痿乾嗽效 涎消

문헌	공통적인 효능	차이가 있는 효능
景岳全書	내용 없음	내용 없음
東醫寶鑑	填精補髓 萬神俱足 五臟盈溢, 髮白復黑 返老還童, 行如奔馬 日進數服 終日不飢渴	調眞養性 補百損 除百病 齒落更生 功效不可盡述

3종의 의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경옥고의 효능으로는 精을 채워주고 髓를 보충해주어 정신이 좋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지며, 백발이 다시 검어지고 노인을 젊어지게 하고, 걸음걸이가 뛰는 말과 같아지도록 해주며, 하루에 수차례 먹으면 종일토록 배고프거나 갈증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각각의 의서에서 밝힌 효능들을 살펴보면 『洪氏集驗方』과 『醫學入門』에는 腸을 운화시켜서 근골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경옥고는 補腎할 뿐만 아니라 健脾하고 동시에 煉蜜하여 膏를 만들어 쉽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히 填補하고, 健運의 공이 오래 지속되고 쇠약해지지 않게 한다¹⁷⁾고하여 경옥고는 填補하는데 소화가 잘 되게 한다는 점을 논하고 있다. 이는 筋이 운동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精血의 滋養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위장이 한다¹⁸⁾는 내용으로 胃와 腸의 기능의 여하에 따라서 肝이 養筋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洪氏集驗方』에서 “腸化爲筋”이라고 하였고, 『醫學入門』에서 “化腸胃爲筋骨”이라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洪氏集驗方』에는 髓가 실하면 혈액이 풍만해지고, 神이 밝아지므로 막혔던 것이 환하게 통하고 기억력도 좋아지게 하며, 하루에 만 가지 말을 외우고, 신은 판단하여 알게 되어 높고 뛰어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腎精이 충족하면 生髓기능이 왕성해지고 髓가 충만하여지면 腦로 상통하는 까닭에 腦가 정신사고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고 하고¹⁹⁾, 腎精이 虧損하여지면 腦髓가 부족해 지는데 뇌수가 부족해지면 頭暈, 健忘, 失眠 등의 증상이

14) 이천편저. 신대역편주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1908-1909.
 15) 吳謙. 동의문헌연구실제편집. 御纂醫宗金鑑. 2006. p.418. p.571-572.
 16) 동의보감국역위원회.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p.131-132.

17) 薛雨芳, 李振波. 琼玉膏对小鼠实验性衰老模型神经系统的作用研究. 中药新药与临床药理. 1999. 10(3). pp.159-161.
 18) 전국한의학대생리학교실. 생리학. 서울. 집문당. 2009. p.271.
 19) 전국한의학대생리학교실. 생리학. 서울. 집문당. 2009. p.302.

출현하며甚하면 思考하는 智力의 遲鈍을 야기하기도 한다²⁰⁾고하여 경옥고가 골수를 보하게 되면 기억력도 개선되고, 판단력도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 『醫學入門』에서는 탄탄, 노채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노채는 노채층이 폐에 침입하여 생긴 전염성을 띤 만성소모성질병으로 해소 혈담 조열 식은땀, 가슴이 아프고 몸이 여위는 증상이 나타나고 노채층을 죽이면서 폐음을 보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데 폐결핵에 해당한다.²¹⁾고 하여 폐결핵에 폐음을 보하는 목적으로 경옥고를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옥고를 복용시킨 실험연구에서 결핵균에 대하여 항결핵 효과가 높으며 고농도(500 μ g/ml)에서 현저한 내성억제효과가 나타났고, 경옥고와 RFP, CNF 혼합하여 투여하였을 때 강력한 항결핵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²²⁾가 있어 결핵에 폐음을 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결핵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폐암²³⁾에 대해 일정하게 면역개선효과가 있고, 골수억제²⁴⁾를 개선하는 효과 등이 있다는 보고되고 있어 문헌에서 밝힌 효능과 실험적 효능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에는 진기를 고르게 하고 養性하고, 모든 허손증을 보하고, 온갖 병을 낫게 하며 빠진 이가 다시 나오는 등 약의 효능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東醫寶鑑』 雜病편 虛勞의 虛勞病源에서 대체로 여러 가지 병과 積聚는 다 허해서 생기는데 신수의 고갈로 심화가 왕성해지고 그로 인해 폐금이 상하고, 폐금과 신수가 쇠약해져서 간목이 왕성해져서 비도를 억누르게 되어 화가 왕성하게 되어 양은 실해지고 음은 허해져 열만 나면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였다²⁵⁾.

20) 전국한외과대학생리학교실. 생리학. 서울. 집문당. 2009. p.285.
21) 동의학사전편찬위원회. 동의의학사전. 서울. 동방의학사. pp.221-222.
22) 全相福, 鄭熙才, 鄭昇紀, 李珩九. 瓊玉膏가 結核菌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대한한방과학회지. 2000. 21(4). pp. 555-563.
23) 이은숙, 서부일, 이준우, 배진승. 경옥고 및 경옥고 가미방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초학회지. 2002. 17(2). pp.101-109.
24) 陈孝银. 瓊玉膏減輕實驗肺癆小鼠化疗导致抑制骨髓有核细胞分裂的研究. 中成药. 2005. 27(4). pp.489-491.
25) 동의보감국역위원회.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1999.

2. 연령익수에 관한 자료

경옥고가 연령익수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여 기록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표 2.)

표 2. 경옥고의 연령익수에 대한 효능

문헌	내용
洪氏集驗方	人年二十七歲以前, 服此一料, 可壽三百六十歲; 四十五歲以前服者, 可壽二百四十歲; 六十三歲以前服者, 可壽百廿歲; 六十四歲以上服之, 可壽至百歲
醫學入門	관련 내용 없음
醫宗金鑑	관련내용 없음
景岳全書	관련내용 없음
東醫寶鑑	若二十七歲服 起壽可至三百六十 若六十四歲服 起壽可至五百年

경옥고가 장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醫學入門』과 『醫宗金鑑』, 『景岳全書』에는 연령익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洪氏集驗方』과 『東醫寶鑑』에만 있다. 『洪氏集驗方』에서 27세 이전에 경옥고 一料를 복용하면 360세에 이르도록 장수할 수 있고, 45세 이전에 먹으면 240세까지 살 수 있고, 63세 이전에 먹으면 120세까지 살 수 있고, 64세 이후인 노년에 먹어도 백수는 누릴 수 있다고 경옥고를 복용하는 나이에 따른 연령을 연장하는 기간이 다름을 구분하였는데 이는 적은 나이에 경옥고를 먹을수록 연령익수 효능이 크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복용량에 대한 기록으로 一料의 단위는 경옥고 재료를 넣어 만든 전체의 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경옥고를 만들어 분량을 환산해보면 19.2kg정도 내외가 된다. 이를 1.2kg을 담을 수 있는 작은 항아리로 16단지가 되는데 복용량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지만, 매일 1.5단지를 복용한다면 1년에 18단지를 먹게 되므로 一料는 한 사람이 약 11개월 정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볼 수 있다.

pp. 1167-1168. "夫衆病積聚皆起於虛虛生百病[本草] 世人惟知百病生於心而不知百病生於腎飲酒食肉醉飽入房不謹節慾妄爲傷精則腎水空虛不能平其心火心火熾炎傷其肺金是絕水之源金水衰虧不能勝其肝木肝木盛則剋脾土而反生火火獨旺而不生化故陽有餘陰不足獨熱而不久矣"

수명을 연장하는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현재 임상에서 경옥고의 복용은 장기간 꾸준히 복용해야 약효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이를 복약지도에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東醫寶鑑』에서도 27세에 경옥고를 먹으면 360세에 이르도록 살 수 있다고 하여 『洪氏集驗方』과 그 내용이 같지만, 만약에 64세에 먹게 되면 500년을 산다고 하여 『洪氏集驗方』에서 100세라는 기록에 비해 400년의 차이가 있다. 연령익수에 대한 내용이 『洪氏集驗方』이 더 세분하여 언급하고 있고, 더 오래된 문헌이란 점에서 『東醫寶鑑』에서 이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3. 복용량에 따른 효능

표 3. 경옥고의 복용량에 따른 효능

문헌	내용
洪氏集驗方	服之十劑, 絕嗜欲, 修陰功, 成地仙矣. 一料分五處, 可救五人癱疾; 分十處, 可救十人癆瘵
醫學入門	관련 내용 없음
醫宗金鑑	관련 내용 없음
景岳全書	관련 내용 없음
東醫寶鑑	一料分五劑 可救癱瘓五人 一料分十劑 可救癆瘵十人

경옥고의 복용량에 따라 효능도 달라짐을 밝히고 있는데 『洪氏集驗方』에서 경옥고를 10제 복용하면서 좋아하는 것과 욕심을 끊고, 음공을 다스리면 地仙이 이뤄진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경옥고를 복용하는 것이 수명 연장뿐 아니라 수행에도 도움이 됨을 말하였다. 一料를 다섯으로 나누어 먹으면 웅질이 있는 다섯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열로 나누어 먹으면 노체를 앓는 열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一料를 5제로 나눠서 복용하면 탄환환자 5명을 구할 수가 있고, 一料를 10제로 나눠서 복용하면 노체환자 10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洪氏集驗方』에서 十劑라는 표현과 一料를 五處와 十處로 나누는 기록이 있고, 『東醫寶鑑』에는 一料를 五劑와 十劑로 나누는 기록이 있는데, 『洪氏集驗方』에서의 五處와 十處, 『東醫寶鑑』의 五劑와 十劑는 같은 단위로 파악되고, 十劑와 十處가 一料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재료, 중량 및 수치법의 비교

표 4. 경옥고의 재료, 중량 및 수치 방법

문헌	내용
洪氏集驗方	新羅人參(二十四兩, 春一千下, 爲末) 生地黃(一秤十六斤, 九月採, 搗) 雪白茯苓(四十九兩, 春千下, 爲末) 白沙蜜(十斤) 右件, 人參, 茯苓爲細末, 蜜用生絹漚過, 地黃取自然汁, 搗時不得用鐵器, 取汁盡去滓用。
醫學入門	生地十六斤(搗爛取汁), 冬蜜十斤(熬瀼過), 人參末一斤半, 茯苓末三斤
醫宗金鑑	生地黃 四斤 白茯苓 十三兩 白蜜 二斤 人參 六兩
景岳全書	人參 十二兩 白茯苓 十五兩(予-〈醫學正傳〉券二引本方作“二十五兩”) 白蜜 五斤, 熱去沫 琥珀 沈香 各五錢 大生地 十斤, 以銀石器并取自然汁
東醫寶鑑	地黃十六斤搗絞取汁 人參細末二十四兩 白茯苓細末四十八兩 白蜜煉去滓十斤

1) 경옥고의 재료

약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삼의 경우 『洪氏集驗方』에서 신라인삼이라고 기록하였으나 『醫學入門』이나 『東醫寶鑑』에는 인삼으로만 기록되어있다. 『洪氏集驗方』을 저술한 송대는 물론 의학입문이나 『東醫寶鑑』을 쓴 명이나 조선 중기는 아직 인삼의 재배가 일반화되지 못 한 때로 주로 산삼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生地黃은 『洪氏集驗方』에서 9월에 채취한 것을 사용하고, 『醫學入門』이나 『東醫寶鑑』에는 채취하는 시기를 기록하지 않아서 생지황을 수확하는 가을에 채취한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될 것이다.

白茯苓은 『洪氏集驗方』에서는 雪白茯苓으로,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서는 茯苓과 白茯苓으로 기록되어있다. 같은 재료인 백복령을 사용하는데 설복령,

백복, 백복령은 같은 내용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백복령의 표현이 눈 설자를 붙여 눈처럼 흰색임을 표현하였는데, 최근 복령을 구입하면 눈처럼 흰색이 아닌 흰색에 회색이나 연한 검정색 반점 같은 것이 있어 원래의 백복령과는 다른 복령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차이는 복령에 松津이 잘 분포되지 않아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흰색의 복령이 귀하다 보니 복령을 가루내고, 흰색의 가루를 첨가하여 굳게 압착하여 인위적으로 가짜 백복령을 만들어 雪茯苓이라고 유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가짜를 구입하지 않으려면 칼복이라고 하여 칼로 송덩송덩 썰어서 불규칙한 덩어리 모양을 한 백복령을 구입한다. 이때도 가짜나 품질이 좋은 복령을 구별하기 위해서 위아래 어금니에 복령 조각을 넣고 교합하였다가 입을 벌리면 진짜 복령은 입이 벌어지지 않고, 다른 물질을 섞어 만든 복령은 부스러져서 입이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으로 眞僞를 가려서 구입하여야 한다.

꿀은 각각 白沙蜜, 冬蜜, 白蜜로 달리 표기되어 있다. 白沙蜜은 겨울이 되어 온도가 내려가면 조청 같던 유통성이 있던 꿀이 굳어지는 변화가 오는데 이때 모래알갱이 같은 성상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외형의 변화 상태를 白沙라고 표현하였으며 꿀을 채취하여 시간이 지나 겨울이 되어야 백사밀이 되므로 冬蜜과 같은 의미가 있다. 冬蜜은 가을에 채취한 꿀이 시간이 지나 겨울이 되면서 수분 함량이 줄어들어 꿀의 순도가 높은 상태가 되는 것을 겨울 동자를 써서 冬蜜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白蜜은 채취한 꿀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흰색으로 색이 변하므로 白蜜이라는 것도 白沙蜜이나 冬蜜과 같은 의미로 표현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경옥고 재료의 수치

『洪氏集驗方』에서 人蔘을 1,000번을 찢어서 가루로 만든다고 하였고, 세말이라고 하였으며 『醫學入門』에는 人蔘 분말이라 기록하였고, 『東醫寶鑑』에서는 人蔘細末로 기록하여 세 의서에서 모두 人蔘을 곱게 가루 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生地黃은 『洪氏集驗方』에서는 찢으라고 하고, 자연 즙을 취하되 쇠로 된 그릇은 피하고, 찌꺼기를 모두 버리라고 하였으며 『醫學入門』에서는 생지황을 찢어서 문드러지게 하여 즙을 취하라고 하였고, 『東醫寶鑑』에서는 생지황을 찢어서 짜서 즙을 얻으라고 하였다. 經時的으로 볼 때 찢어서 즙을 얻는 내용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꿀은 『洪氏集驗方』에서는 생명주천으로 여과하고, 『醫學入門』에서는 볶아서 여과하고, 『東醫寶鑑』에서는 불에 달구어 정련한 뒤에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하여 3가지 의서 공통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서 煎와 煉의 방법을 사용하여 꿀의 수분 함량을 일정한 정도로 만들게 하였다고 본다. 현재 수분함량이 21~23% 수준으로 비교적 묽은 상태의 봉밀이 유통되고 있다. 경옥재료를 준비하여 꿀과 생지황 즙과 함께 분말 상태의 人蔘과 백복령을 반죽하여 맛을 보았을 때 꿀이 묽으면 가장 적절한 기미를 갖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연밀하여 일정한 수분을 증발시켜는 법제를 한 것이다. 반복적으로 경옥고 재료를 구입하여 경옥고를 제조해 본 저자의 경험으로 人蔘과 백복령 가루를 생지황즙과 꿀로 혼합하여 제조할 때 꿀의 수분 함량은 19%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경옥고 재료의 중량

약재의 분량을 『洪氏集驗方』, 『醫學入門』, 『東醫寶鑑』 순으로 살펴보면 人蔘은 각각 24량, 1근반, 24량으로 기록되어 있어 3종 의서에서 모두 900g으로 동일한 중량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生地黃은 3종의 의서에서 모두 16근으로부터 즙을 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白茯苓은 49량, 3근, 48량으로 그 분량이 약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1량을 37.5g으로 계산하여 보면 각각 1,837.5g, 1,800g, 1,772g으로 1,800g이 중앙값으로 백복령은 3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꿀은 법제를 한 뒤 중량으로 10근을 사용한 것이 3종 의서에서 동일하다.

인삼, 백복령, 생지황, 백밀의 중량이 각각 900g, 1,800g, 9,600g, 6,000g으로 파악되었는데, 실제로

경옥고를 만들기 위해 생지황을 즙을 내보면 비가 많은 해에는 즙이 많은 대신 농도가 묽고, 가뭄이 있는 해에는 즙의 양이 적고 농도가 진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즙을 짜냈느냐에 따라서 그 양에 차이가 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 녹즙기에 넣어 나온 즙액을 사용하는데, 녹즙기로 즙을 짜 내고 난 뒤에 생지황찌꺼기를 프레스로 압착하여 보면 다시 상당량의 생지황즙액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옥고에 생지황의 양을 생지황즙을 얻기 위해 생지황의 무게로 9,600g으로 정하는 것 보다 생지황 즙액 몇cc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5. 제법비교

『洪氏集驗方』, 『醫學入門』, 『東醫寶鑑』에 기록되어 있는 경옥고를 만드는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옥고의 4가지 약재들을 반죽하고 난 뒤에 항아리에 넣고 항아리 입구 봉하기를 한다. 그리고 끓는 물속에 넣고, 3일주야 불 때기를 한 다음 항아리를 꺼내 우물물에 담그는 순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재를 반죽하여 항아리에 넣기 및 항아리 입구 봉하기

표 5-1. 약재를 반죽하여 항아리 넣기 및 항아리 입구 봉하기

문헌	내용
洪氏集驗方	藥一處拌, 和勻, 入銀石器或好瓷器內封用, 如器物小, 分兩處物盛, 用淨紙二三十重封閉, 入湯內
醫學入門	四味和勻入瓷瓮內, 用綿紙七重, 厚布一重, 緊封瓮口置銅鍋內
醫宗金鑑	右以地黃汁同蜜煮沸, 用絹濾過, 將參·茯爲細末, 入前汁和勻, 以磁瓶用綿紙十數層, 加箬葉封瓶口, 入砂鍋內,
景岳全書	右先以地黃汁同蜜煮沸, 攪勻, 用密絹濾過, 將人參等爲極細末, 和蜜汁入磁銀瓶內, 用綿紙十餘層加箬葉封瓶口, 入砂鍋或銅鍋
東醫寶鑑	右和勻 入磁缸內, 以油紙五重 厚布一重 緊封缸口 置銅鍋內 水中懸胎 令缸口出水上

『洪氏集驗方』에서는 약물을 한 곳에서 뒤섞어(拌) 和勻하라고 하였고,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서는 4가지 약물을 和勻하라고 하였다. 『洪氏集驗方』에서 和勻하는 방법으로 뒤섞어서 하라고 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옥고를 구성하는 고운 인삼가루, 생지황 즙, 백복령 가루, 꿀 이 4가지 약재가 서로가 응할 수 있게 두루 잘 섞이게 하라는 의미로 화균이라 표현하였다고 보여 진다. 즉, 약물들 4가지가 서로서로 잘 섞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4가지 약재들을 혼합할 때 攪拌이라고 해서 휘저어서 잘 섞이게 하는데 잘 저어도 생지황 즙과 꿀이 잘 섞이지 않을 경우가 있고, 생지황 즙과 꿀이 인삼과 복령의 분말과 고루 섞이지 않아 덩어리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和勻이란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洪氏集驗方』은 은그릇이나 석기 혹은 좋은 오지 그릇에 담는다고 하였고, 『醫學入門』은 오지그릇이나 항아리에 담는다고 하였으며 『東醫寶鑑』은 항아리에 담는다고 하였다. 즉 銀石器或 好瓷器, 瓷瓮, 磁缸으로 그 기록은 다르지만, 흙으로 만든 토기를 사용하라고 하여 동일한 용기에 넣으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洪氏集驗方』에서 “如器物小, 分兩處物盛”라고 하여 만약에 그릇이 작으면 두 곳으로 나눠서 담으라고 하였는데, 당시에는 질그릇 만드는 것이 어려워 큰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기 보다는 작으면 다른 그릇에 담으라고 한 것인지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당시에 신라 인삼과 꿀을 구해 약을 만들었다면 질그릇 이 귀하다고 해도 큰 그릇을 다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작은 그릇에 너무 짙 차게 넣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그릇에 나눠서 담으라고 한 것으로 판단한다.

『洪氏集驗方』은 깨끗한 종이를 써서 20~30겹으로 잘 봉하여 막은 다음 끓는 물에 넣는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 종이의 재질이나 자기를 넣는 술에 대한 내용은 없다. 『醫學入門』에서는 면지를 사용하여 일곱 번 쌓고, 두꺼운 천으로 한 겹 싼 다음 단단하게 항아리 입구를 봉한 다음 구리로 만든 술에 넣는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기름을 먹인 종이 다섯 겹과 두꺼운 천을 한 겹 더 대어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봉한 다음 구리로 만든 술에 넣어 모태의 자궁 속의 물에 태아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하여 항아리 입구가 물 위로 나오도록 한다고 하여 경옥고 만드는 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東醫寶鑑』이 기존 서적을 참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경험에서 얻은 중요한 내용을 첨가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2) 불을 때고 우물물에 담그기

표 5-2. 3일주야 불 때기 및 우물물 담그기

문헌	내용
洪氏集驗方	以桑木柴火煮六日, 如連夜火即三日夜 取出用蠟紙數重包瓶口, 入井內, 去火毒 一伏時
醫學入門	用桑柴火煮三晝夜 再用黃蠟紙二三重包扎瓮口 納井中浸一日夜
醫宗金鑑	桑柴火煮, 三晝夜取出, 換紙扎口, 以蠟封固, 懸井中, 一日取起,
景岳全書	以桑柴火, 長流水沒瓶(予-長流水沒瓶 煮三晝夜 <醫學正傳>引本方作 “以長流水沒瓶頸 用桑柴文武火煮三晝夜” 煮三晝夜, 取出換油蠟紙紮口, 懸浸正中半日以出火氣, 提起仍煮半日, 以去水氣, 然後收藏.
東醫寶鑑	以桑柴火煮三晝夜 如鍋內水減則用暖水添之 日滿取出 再用蠟紙 緊封缸口 納井中浸一晝夜

불을 때는 것에 앞서 땀감을 어떤 것을 사용하였는가를 살펴보면 3종 의서에서 모두 뽕나무나 설을 이용하여煮한다고 하였다. 불 때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洪氏集驗方』은 육일 낮 동안 불을 때고, 밤을 이어서 불을 땀다면 삼 일 밤이면 된다고 하였는데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서는 삼일 밤낮으로 불을 때는 방법만을 기록한 것이 차이가 있다.

불을 땀 다음에 우물물에 담그기를 하는데 『洪氏集驗方』에는 삼일 밤낮으로 불을 땀 다음 술에서 항아리를 꺼내어 밀랍을 먹인 종이로 항아리 입구를 여러 번 싼 다음 우물에 넣어 화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가 알을 낳는 시간 동안 넣는다고 하였다. 『醫學入門』에서도 역시 밀랍을 먹인 종이를 2중 3중으로 웅기 입구를 싼 다음 우물물에 넣어 하루 밤을 담근다고

하였고, 『東醫寶鑑』에서는 술 내에 물이 없어지게 되면 따뜻한 물을 첨가한다고 해서 다른 문헌에 보이지 않는 경옥고를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日滿 取出하여 밀랍으로 항아리 입구를 단단하게 봉하고 우물물에 담근다고 했다. 『洪氏集驗方』에서만 경옥고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우물물에 넣는 이유를 화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물물에 넣는 시간은 새가 알을 낳는 시간 동안이라고 하여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서 하루 밤과 낮을 담근다고 한 것과 다르다.

밀랍을 먹인 종이로 단단하게 봉하는 것은 우물물에 넣었을 때 항아리 안으로 물이 넘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東醫寶鑑』은 구리 술 안의 물이 줄어들면 따뜻한 물을 더 부어서 물의 양을 유지한다고 하여 불 때는 과정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 탕에 다시 넣고 1일 불 때기

표 5-3. 1일주야 불 때기 및 기타

문헌	내용
洪氏集驗方	取出再入舊湯內 煮一日 出水氣 取出開封, 取三匙, 作三盞, 祭天地百神, 焚香設拜, 至誠端心
醫學入門	至次日再入舊湯內煮一日夜 出水氣
醫宗金鑑	懸井中, 一日取起, 仍煮半日, 湯調服.
景岳全書	懸浸正中半日以出火氣, 提起仍煮半日, 以去水氣, 然後收藏.
東醫寶鑑	取出再入舊湯內 煮一晝夜 以出水氣 取出先用少許 祭天地神祇

우물에서 꺼낸 다음 삼일 동안 달이던 물속에 다시 넣고 하루 밤낮을 더 달이는 내용은 『洪氏集驗方』, 『醫學入門』, 『東醫寶鑑』에서 그 내용이 똑 같고, 하루 동안 불을 더 때는 이유도 수기를 내보내기 위한다는 내용도 동일하다. 처음 삼일 동안 불을 때면서 불기운이 지나치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물에 담가 화독을 제거하는데 이 때 물 기운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불을 더 때는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하루 동안 불을 때는 것은 경옥고의 약재들을

익힌다는 개념보다 약재들이 보다 잘 숙성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옥고가 완성되면 『洪氏集驗方』에서는 세 술갈을 떠내고 술 석 잔을 마련하여 지극한 정성과 단정한 마음으로 하늘과 땅의 신께 제를 올리고 향을 사르고 절을 하여 약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약이 생명을 돕고 살리는 것에 쓰이기를 기원하였다. 『醫學入門』에는 제를 올리는 게 빠져 있고 『東醫寶鑑』은 경옥고를 약간 취하여 천지신명께 제를 올린다고 간단하게 적었다.

경옥고는 4가지 약재와 하늘과 땅의 기운의 조화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천지신명에게 고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洪氏集驗方』과 『東醫寶鑑』에서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은 천지(대자연)의 작용에서 상응한다는 한의학적 정체관념²⁶⁾에서 비롯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절차라고 판단된다.

6. 경옥고의 복용방법과 보관법

표 6. 경옥고의 복용방법과 보관법

문헌	내용
洪氏集驗方	每晨朝, 以二匙溫酒化服, 不飲者, 白湯化之
醫學入門	每日空心 溫酒調服
醫宗金鑑	湯調服.
景岳全書	每日清晨及午後, 取三匙, 用溫酒一兩許調服, 或白湯亦可.
東醫寶鑑	每取一二匙 溫酒調服 不飲酒白湯下 日進二三服 如遇夏熱 置陰涼處 或藏米中 或埋地中 須於不聞鷄犬聲幽淨處

『洪氏集驗方』에서는 매일 새벽에 경옥고를 복용하도록 시간을 정하였고 『醫學入門』에서는 공심에 먹는다고 하였고, 『東醫寶鑑』에서는 특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루에 두세 번 복용한다고 하였다.

한 번에 먹는 양을 『洪氏集驗方』에서는 두 술갈이라고 하였고, 『東醫寶鑑』은 한두 술갈이라고 하였으며 『醫學入門』에서는 복용하는 양을 정하지 않았다.

복용하는 방법에 대한 살펴보면 『洪氏集驗方』에서는 따뜻한 술에 타서 먹도록 하였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따뜻한 물에 타서 먹도록 하고 있다. 『醫學入門』에서는 술에 타서 먹는 방법만 제시하고 있다. 그냥 물이 아닌 따뜻한 물에 타서 먹도록 한 내용과 술에 타서 먹는 내용은 찬 물은 기화기능이 떨어지므로 약물의 흡수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타서 먹도록 한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술에 타 먹는 방법은 빠르게 경옥고가 인체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술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영양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경향을 갖게 하므로²⁷⁾ 공급받아야 할 입장에서 소모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도수가 낮은 술로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옥고를 보관하는 방법은 『東醫寶鑑』에만 제시되어 있다. 더운 여름철 더울 때에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혹 얼음 저장고나 또는 땅에 묻어 보관하도록 하였고, 모퉁지기 닭소리나 개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두도록 하였다. 닭이 우는 소리나 개가 짖는 소리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나는 소리이므로 약을 보관할 때는 인가와 떨어진 조용한 곳에 보관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한편으로 다른 기운들에 의해 변화가 발생되지 않을 조건이 되는 곳에 보관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보관 장소까지 기운에 대한 배려를 한 내용은 『東醫寶鑑』에서만 나타나는 기록으로 약의 기운은 천지자영의 기운과 교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점을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 본다.

26) 양력. 주역과 중국의학 上. 서울. 법인문화사. 1995. pp.394-395.

27) 오은기. 알코올 농도에 따른 주상치료 처방의 선택에 관한 문헌 연구- 『東醫寶鑑』 수록 처방을 중심으로. 2007.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금기사항

표 7. 금기사항

문헌	내용
洪氏集驗方	地黄取自然汁, 搗時不得用鐵器 修合之時, 沐浴志誠, 勿輕示人
醫學入門	修合沐浴, 忌鷄犬孝婦人
醫宗金鑑	내용 없음
景岳全書	製須淨室, 忌鷄·犬·歸人.
東醫寶鑑	不令婦人喪服人見之 製時終始勿犯鐵器 服時忌食葱蒜蘿蔔醋酸等物

『洪氏集驗方』에서는 지황즙을 잘 때 철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고, 약을 수치하여 만들 때는 목욕을 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며 함부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여 경건한 자세로 약을 만들 것을 권하고 있다. 『醫學入門』에서는 몸을 깨끗하게 목욕하여 다스리도록 하면서 수탉과 개를 꺼린다고 하여 인가와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만들라고 하였고, 상복을 입은 사람과 부인은 약 만드는 곳에 가까이 오지 못 하도록 하였다. 『景岳全書』에서는 경옥고를 만드는 공간을 반드시 청정하게 하고 닭과 개, 부인을 꺼리라고 하였고, 『東醫寶鑑』에서는 상복 입은 사람과 부인이 약 만드는 것을 보지 못 하도록 하라고 하였고, 경옥고를 만드는 내내 철기가 닿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만 경옥고를 먹을 때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제시하여 과, 마늘, 무, 식초, 신 것 등을 삼가도록 하였다. 모든 의서들이 공통으로 몸을 청정하게 하고, 나쁜 기운이 조금이라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들어 경옥고를 만들도록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8. 가감경옥고

『醫學入門』에서는 경옥고에 천문동을 가미하여 ‘경액고’라고 이름을 붙였고, 『景岳全書』에서는 본방에는 호박과 침향 두 가지 약이 없는데 구선이 이 두

가지 약물을 첨가했는데 그 효과가 이상하여 지금 그 처방을 기록한다고 하여 호박과 침향 두 가지 약물을 첨가하여 경옥고를 만들어 특이한 효과를 보았음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호박과 침향의 약성을 살펴보면 琥珀은 소나무에 속한 식물의 樹脂가 地中에 埋沒되어 화석을 결성한 것으로 性味が 平無毒甘하고 降하여 行水 散瘀 安神의 要藥이 된다고 하였고²⁸⁾, 沈香은 팔꽃나무과에 속한 常綠喬木인 침향나무의 목재에 함유된 樹脂로 性味が 微溫苦辛微甘하고, 性이 升도하고 降도 하며 능히 扶脾 達腎하고 攝火歸源하며 行氣하되 氣를 상하지 않고, 過中하되 火를 助하지 않아서 降氣 平肝 助陽의 良品이 되고, 痰涎을 墜하고, 命門을 補하는 要藥이 된다. 모든 나무는 浮하되 침향은 홀로 體가 重하여 가라앉으므로 下氣墜痰하고 또 그 芳香은 健胃興奮작용이 있어서 理氣調中하며 臟腑를 溫養하고 衛氣를 強和하고, 補火 壯陽하므로 氣逆喘促을 치한다고 하였다²⁹⁾. 그러므로 호박 침향을 더 넣어 만든 경옥고는 정체된 수기와 어혈을 제거하고 장부를 온양하는 효과를 더 가질 목적으로 가미되어 사기를 제거하고 精髓를 보익하는 補瀉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8. 가감경옥고

문헌	내용
醫學入門	或加天門冬, 名瓊液膏
醫宗金鑑	내용 없음
景岳全書	本方原無琥珀·沈香二味, 乃麗仙(即朱權 明太祖朱元璋 第十六个子 封爲寧獻王)加入者, 云奇效異常, 今並錄其方
東醫寶鑑	本朝永樂中太醫院會議加天門冬麥門冬地骨皮各八兩 進御服食 賜號益壽永眞膏

『東醫寶鑑』에서는 명조 영락제 당시 태의원 회의에서 경옥고에 천문동 맥문동 지골피 각8량(300g)을 가미하여 황제에게 올려 드시게 하였더니 황제가 익수영진고란 이름을 내려주셨다고 하였고 하였는데,

28) 申佶求. 申氏本草學. 壽文社. 서울. 1982. pp.564-565.
29) 申佶求. 申氏本草學. 壽文社. 서울. 1982. pp.492-493.

麥門冬은 나리과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麥門의 塊根을 건조한 것으로 성미가 微寒감하고 오로지 肺經氣分으로 行하여 肺熱을 治하는 要藥이 된다고 하고, 麥門冬에 地黃을 使로 하여 복용하면 사람의 두발이 희어지지 않고, 精髓를 補하고 心氣를 通하고 喘促을 定하고, 사람의 肌體를 滑潤하게 하고 身上의 一切 惡氣와 不潔한 疾病을 除去한다고 하였고³⁰⁾, 天門冬은 나리과에 속한 多年生慢性草本인 천문동의 塊根으로 성미가 寒甘苦한다. 性이 寒하되 능히 補하여 上으로 水源을 益하고 下로 腎을 通하여 肺熱을 降하고 化痰하고 止咳하고 生津하는 要藥이 된다고 하였고³¹⁾, 地骨皮는 구기자나무의 根皮로 性味가 寒苦하고 清血 除熱 正氣하며 補陰退熱의 要約이 된다³²⁾고 하여 영진 익수고는 경옥고의 효능에 補陰退熱하는 기능이 더해진 약물로 상열의 증상이 있는 병증이나 나이가 들어 陰液이 부족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자료들을 통하여 경옥고는 일정한 효과를 더 구하기 위하여 경옥고에 1~3가지 약물을 추가로 더 첨가하여 가미경옥고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경옥고와 경옥고 가미방의 면역활성에 관한 연구³³⁾와 경옥고 및 경옥고 가미방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³⁴⁾에서 표고버섯가루와 동충하초를 서로 다른 비율로 첨가하여 가미경옥고를 활용하여 항암효과와 항종양효과가 있음을 밝혔는데, 경옥고 가미방은 경옥고의 기본처방의 효과를 바탕으로 첨가한 약물의 효과를 통하여 효과적인 한약제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저자도 항암효과를 가진 漆根과 항균효과가 있는 松根을 첨가한 경옥고를 제조하여 자궁암 수술 후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게 복용시켜 완고한 하복부 통증과 체력저하 증상을 개선시키는

양호한 효과를 얻는 임상사례가 있었다. 이는 화학요법을 한 뒤 환자들은 氣陰兩虛가 위주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경옥고를 이용하여 화학요법 뒤 불량한 반응을 치료한 연구³⁵⁾에서 가미경옥고에 대한 효과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9. 기타 의서에서의 경옥고에 관한 자료

張氏醫通에서의 瓊玉膏는 治虛勞乾咳 喉中血腥 腸中 隱痛이라고 하였고, 약제와 중량에 대해서는 “鮮地黃 四十兩 人參 另爲末 白茯苓 另爲末. 沈香 另研 琥珀 另研 各半兩 先以地黃熬膏 點紙上不滲 入人參 茯苓末 並入糖晶二十兩 攪勻鎔化離火 再入琥珀沈香和勻 磁罐 收藏 清晨午前 溫酒服數匙 沸湯亦可”라고 하였고³⁶⁾고 하였는데 『張氏醫通』에서 소개한 경옥고는 『洪氏集驗方』이나 『醫學入門』, 『東醫寶鑑』의 경옥고와 재료 구성과 제조법이 많이 달라 같은 경옥고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경옥고 재료 중 꿀이 빠져 있으며 재료를 한 곳에 모아 잘 섞은 다음 고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생지황즙만 가지고 먼저 고를 낸 다음 다른 재료를 섞어가면서 약을 만들고 있다. “생지황 1.5kg (40냥)을 준비해서 끓여 고를 만드는데 종이를 대었을 때 위에 배어나지 않을 정도로 만들라고 하였다. 생지황을 짓뭉어 즙을 내라는 표현은 없지만 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즙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생지황고를 낸 다음 준비한 인삼가루와 복령가루 375g과 糖晶750g을 膏에 넣고 잘 섞어 주면서 불로 가열하여 재료들이 녹아들어 어울리게 한다. 여기에 호박과 침향18.75g을 넣고 잘 섞이게 해 주면 경옥고가 완성된다. 보관은 자기에 넣고, 맑은 날 새벽이나 아침에 따뜻한 술에 타서 몇 술갈 먹거나 끓인 따뜻한 물에 타서 먹으라고 하였다.”고 하여 홍씨경험방이나 동의보감의 경옥고의 제조방법과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차이점은 최근의 실험연구의

30) 申佶求. 申氏本草學. 壽文社. 서울. 1982. pp.112-113

31) 申佶求. 申氏本草學. 壽文社. 서울. 1982. pp.115.

32) 申佶求. 申氏本草學. 壽文社. 서울. 1982. pp.724.

33) 이은숙, 서부일, 이준우, 배진승. 경옥고와 경옥고 가미방의 면역활성에 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2002. 17(2). pp.95-100.

34) 이은숙, 서부일, 이준우, 배진승. 경옥고 및 경옥고 가미방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2002. 17(2). pp. 101-109.

35) 陳孝銀, 徐云生, 楊欽河, 樑杰. 瓊玉膏對實驗肺癌小鼠化療導致胃腸抑制的影響. 山東中醫雜誌. 2002. 21(11). pp.736-737.

36) 張璠. 張氏醫通.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0. p.728.

또한 가스의 경우 산소의 부족이나 폐가스가 약효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전기를 사용할 경우 극성을 갖게 하여 약재끼리 혼합이 잘 안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제조할 때 어떤 연료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옥고를 만들 때나 보관할 때 금기하는 내용은 경옥고는 약재의 혼합된 기운만이 약효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만드는 장소의 천지자연의 기운이 서로 감응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제조 장소의 선택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될 것이다. 경옥고의 복용 방법은 따뜻한 물이나 술에 타서 복용하도록 하였는데, 경옥고를 膏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 이외에 丸藥으로 제형을 변형시켜 복용하게 하거나, 탕약에 경옥고를 첨가하여 복용하게 하는 방법을 적용시켜 경옥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질병에 따라 다양한 약물을 첨가하여 가미경옥고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연구 테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 結 論

고전에 기록된 韓藥製劑 가운데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경옥고의 효능과 제조 방법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경옥고는 정을 채워주고 골수를 보충해 주는 효과가 있어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하게 하는 건강향상 효과와 뇌수부족으로 오는 현훈, 건망증을 치료하고, 위 점막 보호 작용, 위와 대장의 기능을 개선하여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기억력 판단력을 개선하게 하고, 폐결핵, 폐암, 골수억제 개선효과 등과 같은 질병치료 효능이 있다.
2. 경옥고의 복용은 오래 동안 할수록 건강향상과 수양에 도움이 된다.
3. 경옥고 재료 가운데 인삼은 곱게 가루를 내야 되고, 생지황은 가을에 구하여 썰어서 즙을 내고 쇠붙이를 피하고, 백복령은 송진이 고루 분포한

흰색을 구입하여 곱게 가루를 내고, 꿀은 겨울의 수분함량이 적은 꿀을 구해 불순물을 제거하여 사용해야 한다.

4. 경옥고 재료인 인삼 백복령 생지황 꿀 4가지 약물이 골고루 잘 섞이도록 해야 하고, 약재의 분량은 인삼 900g, 백복령 1,800g, 생지황 9,600g, 꿀 6,000g이며, 경옥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을 댈 때 뽕나무와 섯을 연료로 사용하고, 6일간 낮에만 때거나, 3일 동안 밤낮으로 때운다.
5. 불을 댈 다음 1일을 우물물에 경옥고 항아리를 담가놓았다가 꺼내, 경옥고의 화독을 제거하도록 하고, 다시 1일 밤낮으로 다시 불에 넣어 숙성하는 과정을 갖는다.
6. 경옥고는 4가지 약물들과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가지고 있어 대자연의 기운을 갖고 있어 만드는 장소나 보관하는 장소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7. 경옥고는 따뜻한 물이나 술에 타서 복용한다.
8. 경옥고에 1가지에서 3가지 약물을 더 첨가하여 특정한 기능이 있는 경옥고를 제조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논문>

1. 陳孝銀, 魏春山. 瓊玉膏抑制肝癌細胞HBxAg表達及對原發性肝癌的防治作用. 細胞與分子免疫學雜誌. 2007.23(1). pp.56-59.
2. 全相福, 鄭熙才, 鄭昇紀, 李珩九. 瓊玉膏가 結核菌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대한한방과학회지. 21(4). pp. 555-563.
3. 이은숙, 서부일, 이준우, 배진승. 경옥고 및 경옥고 가미방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2002. 17(2). pp. 101-109

4. 陳孝銀, 魏波, 孫立, 黎俏梅. 瓊玉膏對實驗性肺癌小鼠化療增效減毒作用的實驗研究. 陝西中醫. 2003. 24(4). pp.376-377.
5. 陳孝銀. 瓊玉膏減輕實驗性肺癌小鼠化療導致抑制骨髓有核細胞分裂的研究. 中成藥. 2005. 27(1). pp.489-491.
6. 薛雨芳, 李振波. 瓊玉膏對小鼠實驗性衰老模型神經系統的作用研究. 中藥新藥與臨床藥理. 1999. 10(3). pp. 159-161.
7. 薛雨芳, 區永欣. 瓊玉膏延緩衰老作用的實驗研究. 中國中醫藥科技. 1997. 4(3). pp.161-162.
8. 陳孝銀, 沈強. 瓊玉膏保護胃粘膜炎作用的實驗研究. 新中醫. 2000. 32(8). pp.36-37
9. 陳孝銀. 瓊玉膏含藥血清對化療藥物抑制肺腺癌細胞株GLC-82體外培養增效作用的實驗研究. 新中醫. 2004. 36(11). pp.75-77
10. 오은기. 알코올 농도에 따른 주상치료 처방의 선택에 관한 문헌 연구(『東醫寶鑑』 수록 처방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1. 陳孝銀, 徐云生, 楊欽河, 糴杰. 瓊玉膏對實驗性肺癌小鼠化療導致骨髓抑制的影響. 山東中醫雜誌. 2002. 21(11). pp.736-737.
12. 이은숙, 서부일, 이준우, 배진승. 경옥고와 경옥고 가미방의 면역활성에 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2002. 17(2). pp.95-100.
6. 동의보감국역위원회.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p.131-132.
7. 전국한의과대학생리학교실. 생리학. 서울. 집문당. 2009. p.271. 282. 302. pp.221-222.
8. 동의보감국역위원회.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p. 1167-1168.
9. 양력. 주역과 중국의학 상. 서울. 법인문화사. 1995. pp.394-395.
10. 申佶求. 申氏本草學. 壽文社. 서울. 1982. p.115, 724. pp.112-113, 131-132, 492-493, 564-565.
11. 張璐. 張氏醫通.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0. p. 728.

<단행본>

1.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中國古代醫方真本秘本全集. 戰國-宋元時期券 第17冊. pp.443-446.
2. 동의보감국역위원회.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p.131-132
3. 원진희. 한의학 치료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p.89-91
4. 이천편저. 신대역편주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p.1908-1909.
5. 吳謙. 동의문헌연구실제편집. 御纂醫宗金鑑. 2006. p.418. p.571-572.